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6호 【루계 제25980호】 주체107(2018)년 4월 16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고 당중앙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뜻깊은 명절을 맞이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만수대언덕으로는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은 군중들의 물결이 끝없이 굽이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식민지약소민족의 눈물만이 흐르던 조국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고 나라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들에도 다함없는 경모의 꽃물결이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들에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끝없는 강성번영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5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 여러 나라 당대표단들, 해외연고자가족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세계정치의 원로, 혁명의 대성인으로 만민의 끝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6돐을 맞으며

당과 정부의 간부들 만경대 방문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15일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전시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앞에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자주의 기치높이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을 보내신 고향집뜨락에 들어선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주체1(1912)년 4월 15일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이민위천의 사상과 혁명의 큰뜻을 키우시며 혁명가로 성장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만경대가문의 고결한 풍모를 보여주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방문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는 태양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찬연히 빛나고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사진을 찍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조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하편지와 전문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하편지와 전문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중앙상임리사회를 비롯한 총련의 중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학우서방, 금강산가극단, 금강보험주식회사, 동해상사주식회사, 조일경제교류촉진회, 동포결혼상담중앙쎈터 등 사업체들 그리고 총련의 각 지방본부와 지부, 분회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재일조선학교들이 축하편지와 전문들을 드리였다.

축하편지와 전문들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이하여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삶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과 리상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축하편지와 전문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시였으며 조선혁명과 시대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자주시대의 해외교포운동을 개척하시고 총련을 무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업적은 영구불멸하며 어버이수령님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고 칭송하였다.

축하편지와 전문들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가슴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복을 누리며 애족애국의 성스러운 한길을 걸어온 크나큰 영광과 행복이 가득차있다고 지적하였다.

축하편지와 전문들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주체위업의 중요한 임익을 맡은 총련을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애족애국의 성새, 믿음직한 성돌로 반석같이 다지고 일군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과의 혼연일체를 이룬 총련의 본때를 세계만방에 과시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축하편지와 전문들은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조국인민들과 숨결도 보폭도 같이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놓으신 북남관계대전환방침과 획기적인 조치들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거족적운동에서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사명과 애국적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축하편지와 전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상과 의도대로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향한 일대 돌파전을 지부를 중심으로 더욱 박력있게 벌려 재일조선인운동에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게 될 전체대회를 영광과 충정의 대회, 승리와 단결의 대회로 빛내이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삼가 올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축하편지와 전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강조하였다.

축하편지와 전문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와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앞날을 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위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담아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시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6돐

경축연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6돐 경축연회가 1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공로자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 성원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연회에 참가하였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부들, 무관부부들,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연회에서는 최룡해동지의 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는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해의 태양절을 맞이한 온 나라 강산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뜨겁게 넘쳐흐르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조국과 혁명,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족만대의 은인,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혁명의 대성인으로 영생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고 사회주의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반드시 실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체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잔을 들었다.

《20세기의 걸출한 정치원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인터네트들 특집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의 인터네트신문, 홈페지, 잡지들이 3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특집하고 글들을 게재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신문 《브레마 뻬레몬》, 인터네트홈페지 《그리폰 쁘레스쩬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김일성주석과 노비첸꼬》라는 제목의 글들을 실었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 《렘쉬쥐》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편집한 글 《김일성동지와 농산기사》, 《만경대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았다》에서 절세위인의 탄생이 가지는 력사적의의를 소개하고 그이께서 한평생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신데 대해 전하였다.

자주와 주권을 위한 선군사상연구 이딸리아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무한히 겸허하신분》, 《인민들과 허물없이 어울리신 위인》, 《아프리카는 잊지 않는다》, 《조선의 사회현실》이라는 제목들로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적풍모와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들을 게재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20세기의 걸출한 정치원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 많은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주시였다.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그이의 업적은 세기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김일성대원수각하 탄생일경축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준비위원회는 《인류자주위업과 김일성주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에 실었다.

글은 자주시대의 위대한 개척자이시며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오늘도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계신다고 하면서 그이의 사상리론업적과 조국해방업적, 전승업적을 격찬하였다.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107권 출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107권을 출판하여 내놓았다.

도서에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전하는 18건의 회상실기가 편집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 건설하도록 하시고 섬유원료인 갈생산을 늘일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신 내용이 회상실기 《〈갈은 곧 비단입니다〉》에 서술되여있다.

회상실기 《개간된 간석지의 물문제해결을 위해 바치신 불멸의 령도》, 《해주련결농기계공장에 찾아오신 사연》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간석지를 개간하고 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저수지건설을 힘있게 벌리며 농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농민들이 농사를 헐하게 지을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경제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새로 꾸린 인민경제대학 인민경제부문별연구실을 몸소 찾으시여 교육교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가르쳐주신 내용이 회상실기 《인민경제대학 인민경제부문별연구실에 오시여》에 담겨져있다.

회상실기 《우리 일군들에게 하신 간곡한 당부》, 《탄부들의 생활을 위해 바치신 귀중한 시간》에는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도록 이끌어주시고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탄부들의 살림집문제를 풀어주신것을 비롯하여 그들이 생활에서 불편이 없이 맡은 일을 잘해나가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인민적수령의 고매한 풍모가 반영되여있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안겨주시려 불면불휴의 현지지도자욱을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회상실기 《농촌상점에서 소집하신 긴급회의》, 《아동옷상점에 남기신 다심한 은정》, 《사과가공품에 깃든 어버이사랑》, 《장항리에 새겨진 사랑의 자욱》에 수록되여있다.

회상실기 《〈전사들이 좋아합니까〉》, 《잊을수 없는 항해》, 《평범한 전사의 가족을 위해 취하신 조치》, 《어버이의 품속에서 받아안은 사랑》은 인민군전사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감명깊게 전하고있다.

도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범한 탁구선수를 친히 만나시여 경기들마다에서 조선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떨치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외국방문의 길에서 전재고아들이 공부하는 학원을 찾으시여 친부모의 사랑을 부어주신 이야기를 담은 회상실기 《체육인들의 심장마다에 안겨주신 민족자존의 정신》, 《외국방문의 길에 새겨진 사랑의 이야기》도 편집되여있다.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107권은 뜻깊은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시키며 그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데 기여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현판제막식

꾸바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현판제막식이 10일 꾸바 김일성고등학교에서 진행되였다.

꾸바 김일성고등학교, 고등교육성,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꾸바 제 인민간의 친선협회의 인사들과 군중들, 꾸바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제막식에서는 《김일성고등학교》라고 씌여진 현판앞에 꽃바구니가 진정되였으며 발언들이 있었다.

꾸바 김일성고등학교 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에 즈음하여 우리 학교에 그이의 존함을 모신 현판을 제막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꾸바혁명의 진정한 동지이시며 전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활동을 깊이 연구하고있다.

우리는 학생들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귀감을 따라배워 사회주의와 꾸바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준비시키기 위해 전심전력할것이다.

또한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단결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학생들을 교육교양할것이다.

캄보쟈국왕과 대왕후가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에 즈음하여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와 대왕후 노로돔 모니니에트 시하누크가 12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국왕과 대왕후의 위임에 따라 왕궁담당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쟈왕국정부 왕궁성대표단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왕궁담당부수상은 대표단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각하의 탄생 106돐에 즈음하여 조선대사관을 축하방문하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국왕과 대왕후는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캄보쟈인민이 가장 흠모하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각하께 경모의 인사를 올릴것을 나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와 전체 조선인민에게 드리는 열렬한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위임하였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나라와 인민을 빛나는 승리와 부강번영에로 이끌어나가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태양절을 각지에서 뜻깊게 경축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조선의 장용한 기상떨치며 혁명적인 총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인류의 태양이 솟아오른 영광의 날을 맞이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천만군민의 의지가 세차게 분출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흘렀다.

경건한 마음안고 숭엄하게 꾸려진 광장공원에 들어선 군중들은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한평생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를 가슴깊이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로 가슴불태웠다.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고있는 제20차 김일성화축전장과 각 도들의 김일성화전시회장으로 절세위인을 우러르는 충정의 대하가 굽이쳤다.

위인칭송의 꽃바다로 황홀경을 펼친 축전장과 전시회장들을 돌아보는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위한 만년재부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흘러넘치고있었다.

중앙과 지방의 미술전람회, 미술전시회장들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은 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력사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조국의 자랑찬 전변의 력사를 전하는 불멸의 화폭들을 뜨거운 격정속에 돌이켜보았다.

평양과 지방의 극장, 야외무대 등에서 태양절을 경축하는 공연무대들이 펼쳐져 명절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국립연극극장에서는 연극 《붉은 눈이 내린다》공연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을 받들어 주체철생산체계를 완비한 황철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당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갈 투철한 사상적각오를 지니고 떨쳐나설 때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으며 자력자강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고 존엄이며 승리이라는 절대불변의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피바다가극단 예술인들은 평양대극장앞에서 공연하였다.

출연자들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위대한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경모심을 《수령님 같으신분 세상에 없습니다》를 비롯한 노래들에 담아 감동깊게 형상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의 령마루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지향을 반영한 국립민족예술단, 국립교예단 예술인들의 공연무대가 릉라인민유원지와 만경대유희장에도 펼쳐져 명절의 환희를 더해주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자강도를 비롯한 각지의 예술인들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기쁨을 다채로운 공연종목들에 담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평성, 신의주, 청진, 함흥, 해주, 강계시 등 각 도소재지들에서는 도예술단예술인들의 경축공연이 있었다.

남성독창 《노래하라 만경대 갈림길이여》, 남성5중창 《우리 수령님》, 합창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비롯한 종목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여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과 행복의 영원한 터전을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의 성스러운 혁명생애가 가슴뜨겁게 어려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량강도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예술공연 《영원한 태양의 노래》도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는 굳은 확신을 안겨주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의 학생소년들이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미래의 주인공, 사회주의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튼튼히 준비해갈 맹세를 안고 조선소년단에 입단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갈 불타는 맹세로 가슴불태웠다.

【조선중앙통신】

다함없는 경모의 정 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온 나라 강산에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 넘쳐흐르는 경사로운 4월.

위대한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워오신 어버이수령님.

자애로운 그 품에 안겨 궁지높고 영광넘친 삶을 누려온 나날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더듬어보며 태양절의 아침 인민들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삼가 열렬한 감사와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있었다.

우리모두를 어서 오라 반겨맞으시며 한품에 안아주시는듯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짓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

해마다 맞이하는 태양절이건만 이해의 명절은 사람들의 가슴을 류다른 추억과 경모의 정으로 끝없이 설레이게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감정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을 잊지 못하는 인민의 고결한 마음이다.

봄바람에 살랑이는 나무들의 잎새들에도 우리 수령님의 체취가 어려있지 않을가.

이런 강렬한 그리움과 경모의 마음들이 태양의 성지를 뜨겁게 달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으로 력사에 류례없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며 백승의 력사만을 광휘롭게 수놓아오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흠모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손자들의 손목을 잡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한 로인을 만났다.

《지난날 력사밖에 밀려났던 우리 인민을 오늘같이 시대와 력사의 중심에 당당히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수령님의 영원한 후손들인 우리 어찌 천년이 간들, 만년이 간들 잊을수 있겠습니까.》

흥분으로 젖은 그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이것이 어찌 그만의 심정이겠는가.

가슴에 번쩍거리는 훈장과 메달을 꽉 채운 전쟁로병들과 인민군군인들, 로동자, 농민, 지식인,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광장에서 만나는 누구나의 가슴속에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여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넘쳐흐르고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이 더욱 세차게 굽이치고있었다.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믿음, 고매한 인덕의 력사,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영원불멸할 한생이였고 그 위대한 력사속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세기적변혁들이 이 땅에 광범하게 펼쳐졌음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득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하기에 이 땅우에 인민을 제일로 위하는 사회주의의 큰집을 일떠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태양절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그리도 도도히 굽이쳐흐르는것 아니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추억은 점차 희미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주체의 최고성지에 흐르는 충정의 대하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후손만대 잊지 않는, 그 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는 수령님의 영원한 한식솔이며 수령님에 대한 일편단심을 체질화한 이 세상 가장 충정스러운 인민이라는것을 더욱 절감하게 한다.

하여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천만 아들딸들의 심장의 맹세 또한 그리도 열화같이 불타는것 아니던가.

우리와 만난 조선인민군의 한 군관은 이렇게 말하였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산같이 쌓이는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우리는 태양의 성지를 자주 찾고있습니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안으시고 끝없는 영광에로 이끌어오신 만고의 령장의 슬하에서 자란 긍지높은 나날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드놀지 않는 기상이 넘치는 그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였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뿐이였다.

절대로 지워낼수 없는것이 바로 인민의 진실한 감정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을 아뢰이고싶어, 새로운 출발진지에 나섰을 때에는 불타는 맹세를 올리고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아 어버이수령님과 마음속대화를 끝없이 나누는것 아니랴.

어버이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천만년 길이 모실 주체의 최고성지를 꾸릴것을 발기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건설장을 수시로 찾으시여 세계에 유일무이한 태양의 성지로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들을 더 잘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헤아리시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

영원한 태양의 축복속에 사는 긍지가 참으로 끝이 없다고 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윤성진동무의 진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인민의 그리움이 얼마나 절절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로 더욱 무궁번영할 내 조국의 앞날이 얼마나 창창한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어찌 이뿐이랴.

태양의 성지에서 만난 평범한 근로자들의 소박한 말을 들어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으로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할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 인민들의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만년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가리라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한결같이 터치는 신념의 목소리이다.

뜻깊은 태양절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끓어넘치는 그 힘찬 맹세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그이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일심의 천만대오가 있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의 뜻이 이 땅우에 더욱 활짝 꽃펴나고 최후승리의 그날은 반드시 앞당겨질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본사기자 전 광 남

후대들을 위한 사랑

세상에 이름난 위인들치고 후대들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전해오고있다.

하지만 후대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치시며 보살펴주고 사랑해주신 위대한 수령님 같으신 자애로운 어버이는 이 세상에 없었다.

우리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드시고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전하여주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한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경제부문일군협의회가 열렸을 때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의회에서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돌리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일을 먼저 하고 다른 일을 하여야 한다고, 과일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먼저 공급하고 어른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과일을 매일 어린이들에게 두알씩 공급하고 어른들에게는 한알씩 공급하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순간 회의장은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하는 협의회에서 과일공급기준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모두는 북받치는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사과나 배를 매일 어린이들에게는 두알, 어른들에게는 한알.

이것을 어찌 산수적개념으로만 받아들일수 있으랴.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어린이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이처럼 다심하고 웅심깊은것이였다.

협의회 참가자들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로투사들도 있었다.

그 순간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못 잊을 추억이 떠올라서 투사들의 격정은 더욱 컸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어느 한 전투에서 적의 수송대를 치고 군수물자를 로획하게 되었는데 그속에는 뜻밖에도 조선사과도 있었다.

그중에서 사과 몇알을 골라서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였을 때 그이께서는 그중 한알을 손에 드시고 이 사과는 조선사과라고, 조선에서는 이런 향기롭고 맛있는 사과가 많이 나온다고 감개무량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근거지에는 아직 조선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조선의 유명한 사과조차 구경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고 하시며 그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 사과라도 보내여 맛이라도 보게 하라고 이르시였다.

대원들이 한알이라도 맛보시라고 거듭 말씀올렸으나 조선사과를 아직 맛보지 못한 어린이들을 생각하시여 한알의 사과를 드시는것마저 끝내 사양하신 어버이수령님.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 조국땅에 풍요한 과일동산들이 펼쳐진 오늘까지도 우리 어린이들부터 먼저 생각하시며 그 공급량까지 헤아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이 땅의 천만부모의 얼과 정을 다 합친다 한들 우리 수령님의 그 사랑에 어찌 비할수 있으랴.

조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도 마음쓰시며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젖어들었다.

정녕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그날의 과일공급기준에는 어린이들을 제일로 여기시는 그이의 숭고한 후대사랑이 집약적으로 응축되어있었다.

이날 항일의 로투사들을 비롯한 전체 협의회참가자들은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정녕 조국의 미래를 위한 사랑의 한평생이라는것을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못 잊을 그날의 이야기는 이 땅에 꽃펴나는 영원한 후대사랑의 무수한 이야기들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일 권

사회주의조국에 끝없이 충직한 참된 소년단원이 되자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15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진행되였다.

각 도소년단대표들과 평양시내 학생소년들,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수길동지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청년동맹일군들, 전쟁로병들, 공로자들이 대회에 초대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앞길에 승리와 영광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에서의 첫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무으시여 주체적소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조선소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해방후 조선소년단을 창립해주시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아이들의 공부만은 절대로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교과서와 학용품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해마다 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에도 참석하시여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후대사랑의 력사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흘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을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대오에 세워주시고 사랑의 축하문도 보내주시였으며 수많은 학교들을 찾으시여 소년단원들이 어려서부터 조국과 인민을 아는 애국자로 자라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쉬임없이 이어가신 전선길이 있어 우리 학생소년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이 비쳐들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제일 좋은 곳마다에 소년궁전과 야영소들을 일떠세워주시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넓은 대문을 열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해마다 조선소년단창립절을 크게 쇠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여주시고 소년단대표들을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최상최대의 영광을 다 안겨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우리 학생소년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명랑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해나가는 조선소년단원의 영예를 빛내일데 대하여 말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소년단입단식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의 선창에 따라 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선서하였다.

일군들과 전쟁로병들, 공로자들이 학생들에게 붉은넥타이를 매여주고 소년단휘장을 달아주었다.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학생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에 화답하며 소년단원의 첫인사를 하였다.

이어 만경대혁명학원 원장 오룡태동지,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송창일동지, 평양체육단 선수 박영미동지가 축하발언을 하였다.

그들은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소년단원들이 소년단기발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준비할것을 당부하였다.

대회는 《김정은원수님 발걸음따라 앞으로》노래주악으로 끝났다.

4월의 조국강산에 펼쳐진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뜨거운 화폭

4월의 봄명절을 맞는 우리 조국땅에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뜨거운 화폭이 펼쳐져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온 나라 대가정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는 당의 은정이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속에 전국의 소학교학생들과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이 맛있고 영양가높은 당과류들과 식료품 등을 받아안았다.

수도 평양으로부터 조국의 북변 두메산골과 분계연선마을,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곳곳에 펼쳐진 가슴뜨거운 화폭은 어머니당의 후대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은정어린 당과류들을 받아안고 기쁨에 겨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학부형들과 교육자, 보육원들은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축복속에 끝없이 창창할 행복동이들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면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후대들을 앞날의 조선을 떠메고나갈 기둥감들로 튼튼히 키워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갖가지 식료품들과 학용품들을 받아안은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 등의 원아들의 가슴에도 기쁨이 차넘쳤다.

원아들과 교직원들은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해 베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그 사랑이 가슴에 그대로 흘러드는것만 같아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그들은 당과 수령을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순결한 도덕의리로 받들어온 부모들처럼 혁명의 피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갈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원아들이 4월의 봄명절을 행복속에 맞이하였다.

사랑, 과자, 운동복 등을 한가득 안고 좋아라고 어쩔줄 몰라하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이 봄명절을 맞이한 조국의 환희를 더해주었다.

강계, 평성, 사리원의 육아원, 애육원의 일군들은 이 나라 천만부모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사랑을 원아들에게 모두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품이 있어 우리 아이들은 나라의 보배,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억군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전국의 양로원, 양생원의 로인들과 보양생들도 명절을 즐겁게 쇠라고 여러가지 영양식료품을 보내준 그 사랑에 눈시울을 적시며 인생의 로년기에도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따뜻이 보살펴주는 우리 당에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펼쳐진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화폭은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사는 무한한 긍지를 가슴뿌듯이 새겨주고있다.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 소년단야영소들에서 첫기 야영 시작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 소년단야영소들에서 첫기 야영이 시작되였다.

야영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워 나라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소년단원들이 참가한다.

뜻깊은 올해의 첫기 야영에 참가하게 된 야영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며 크나큰 사랑만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이 땅우에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대화원을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첫기 야영시작모임이 15일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서 진행되였다.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수길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야영소교직원들과 야영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야영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맑고 푸른 하늘가에 랑랑히 울리고 야영기발이 게양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새 세대들을 앞날의 조선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주인공들로 내세우시며 세상에 부럼없는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훌륭한 멋쟁이궁전에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게 된 크나큰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야영생들이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을 통하여 더욱 공고히 다지며 다양한 야영활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억센 기둥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석암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각지 소년단야영소들에서도 첫기 야영이 시작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예술단 훌륭한 공연으로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예술인, 평양시민들과 함께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를 관람하였다

【평양 4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첫 공연부터 깊은 인상을 남긴 중국예술단은 15일 동평양대극장에서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공연의 막을 올려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우리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수많은 군중들이 형제적인 중국인민에 대한 친선의 따뜻한 정을 안고 공연장소로 모여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박광호동지, 리수용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극장에 도착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송도동지,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군동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예술인, 평양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보았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성원들, 무관부성원들과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들도 공연을 관람하였다.

중국의 관록있는 중앙발레무용단 예술인들은 중국특색의 발레무용의 본보기작인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를 통하여 1930년대 착취와 천대속에 시달리던 중국녀성들이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혁명투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재치있는 무용기교로 잘 보여주었다.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 성격 등을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이며 여운을 남긴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절찬을 받았다.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가 전달되였다.

뜻깊은 태양절에 훌륭한 공연무대를 펼친 중국의 예술사절들에게 관중들은 꽃다발들을 안겨주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더욱 굳건히 이어주신 형제적인 친선의 정이 공연장소에 차넘쳤다.

친어버이의 다심한 은정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한 조국강산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마른날, 궂은날도 가림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시며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

진정 그이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열렬한 사랑으로 수놓아진 애국헌신의 한평생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의 한평생은 쉬임없이 인민들을 찾으시는 현지지도의 한평생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의주타올공장(당시)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뜻밖에 그이를 모신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감격은 끝이 없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구내에 게시한 《증산과 절약》, 《실제고》라는 표어들, 그림판들과 태일홍을 비롯하여 갖가지 꽃들이 활짝 핀 꽃밭을 둘러보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산현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 처음으로 들리신 곳은 준비직장의 어느 한 작업반이였다. 작업장에서는 기계가 여러가지 색실들을 감으며 경쾌하게 돌아가고있었다.

작업모습을 한동안 눈여겨 살펴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에게 이 기계를 어디서 만들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일군은 공장의 기술자들이 녀성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만든것이라고 말씀올렸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기계의 구조와 작용원리를 자세히 살펴보시고나서 참 좋다고, 잘 만들었다고 하시며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직포직장 타올작업반에 들리시였을 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직포기를 구체적으로 보시며 타올작업반에 있는 직포기도 좋다고 더없이 기뻐하시였다.

이어 한 작업반에 이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천을 짜는 직포공들의 작업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다가 문득 일군에게 제품을 좀 보자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은 잠시 망설이였다.

이 작업반에서는 머리수건을 만들 천을 짰는 머리수건은 완성작업반에 가야 볼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일군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없다고, 어서 다시 가자고 하시며 완성작업반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시는것이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그때 마침 작업반에서는 한창 제품들을 포장하고있었다.

일군이 올리는 꽃무늬가 새겨진 머리수건을 받아드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건의 두 귀를 잡으시고 앞뒤면을 주의깊게 살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옆에 있는 한 녀성로동자에게 손수 머리수건을 씌워주시고 그 녀성의 머리수건을 쓴 모습을 앞에서도 보아주시고 옆에서도 보아주시면서 참 보기 좋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기울이시는 다심한 정이 뜨겁게 흐르는 감동깊은 화폭이였다.

녀성들이 짠 하나의 제품을 보시고도 그렇듯 사려깊이 관심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은 정녕 한없이 다심하고 자애로운 친어버이의 모습그대로이시였다.

본사기자

누리를 진감시키며 끝없이 울려퍼지는 주체의 태양찬가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련환공연 진행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련환공연이 15일 평양대극장, 봉화예술극장,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시내근로자들이 공연들을 관람하였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이 함께 공연들을 보았다.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은 4월의 봄 명절을 화려한 예술무대로 경축할 일념을 안고 성악과 기악, 무용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펼쳐놓았다.

출연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류자주위업수행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숭엄한 예술적형상으로 열렬히 칭송하였다.

라오스국립예술단의 녀성독창가와 벨가리아녀성가극가수가 절절하게 부른 노래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는 장내를 격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고매한 풍모를 뜨겁게 돌이켜보게 하는 위인흠모의 송가들은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을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젖어들게 하였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을 격조높이 구가한 녀성독창 《인정의 세계》, 합창 《불타는 소원》은 관중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만민이 칭송하는 인류의 태양을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사는 끝없는 긍지와 환희에 넘쳐있었다.

로씨야인민의 민족적감정과 정서, 생활세태를 진실하게 반영한 로씨야예술인들의 음악무용작품들은 련환공연무대를 이채롭게 하였다.

로씨야 엠. 예. 퍄뜨니쯔끼명칭 국립아까데미야민속합창단, 로씨야 첼랴빈스크국립우랄무용단, 로씨야 웰리나야 스쩨삐 까자크예술단의 배우들이 관록있는 예술단체로서의 실력을 잘 보여주며 아름다운 음악세계를 펼칠때마다 예술인들의 형상과 곡조에 맞추어 박수를 터쳐올리는 관중들의 교감으로 하여 무대와 객석은 하나로 끓어번졌다.

룡풍전군협주단의 남성합창 《발걸음》,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충정심을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잘 보여준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예술인들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해외공민된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애국애족의 한길만을 꿋꿋이 걸어가려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불변의 신념을 혼성4중창 《조국과 민족위해 이 청춘 바치리》, 혼성2중창 《조국의 영예를 빛내여가리라》의 구절구절에 담았다.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출연한 남성독창 《아 수령님》, 《조국은 원수님》, 독무 《대홍단 삼천리》, 무용 《하나》는 천하제일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민족적자긍심을 간직하고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려는 동포들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출연자들은 《철령아래 사과바다》, 《오늘의 창성》, 《바다만풍가》의 흥취나는 곡목들을 통하여 날로 비약하는 조국의 눈부신 현실을 감명깊게 펼쳐보임으로써 관중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련환공연무대에는 여러 나라 교예배우들이 성의껏 준비한 교예, 요술종목들도 올랐다.

《천축조형》, 《모자재주》, 《공치기》, 《말재주》를 비롯한 체력교예종목들에 출연한 교예배우들은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기교동작들과 뛰여난 재주, 우아한 률동을 련이어 펼쳐보이며 무대를 황홀하게 장식하였다.

재치있는 손동작과 능숙한 교감으로 관중들의 흥미를 돋구는 요술작품들도 태양절을 민족의 대경사로 맞이한 우리 인민에게 랑만과 희열을 더해주었다.

친선의 정이 넘치는 속에 진행된 공연들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출연자들의 세련되고 열정적인 형상으로 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들이 전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양대극장에서-

-봉화예술극장에서-

-평양교예극장에서 -

축전무대마다 펼쳐진 다함없는 흠모의 세계

로씨야의 여러 예술단체 예술인들

지금 수도 평양에서는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시다.》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마음들이 반영된 특색있고 이채로운 예술공연들의 화폭은 로씨야예술인들의 무대에서도 훌륭히 펼쳐지고 있다.

로씨야국가교예회사교예단에서

뜻깊은 올해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는 지난 기간 여러차례에 걸치는 공연과정에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그가운데는 여러곳의 교예축전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로씨야국가교예회사교예단도 있다.

로씨야국가교예회사교예단은 지난 기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여러차례 참가하여 자신들이 준비한 교예작품들을 무대마다에 훌륭히 펼쳐놓았다.

우리 인민들속에 재능있고 관록있는 교예단체로 널리 알려진 교예단에서는 이번에 여러 국제교예축전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체력교예들인 《어깨장대》와 《모자재주》 등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우리와 만난 한 교예배우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가지고오는 종목들은 로씨야국가교예회사교예단에서 제일 훌륭한 교예작품들이며 공연에 참가하는 배우들도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비록 자기는 처음으로 4월의 봄축전무대에 나섰지만 재치있는 기교를 보여줄 때마다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주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다발도 안겨주는 관람자들의 모습에서 선량하고 마음씨고운 조선인민들을 알게 되였다고 하였다.

이렇듯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여도 조선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은 새 세대 교예배우들의 가슴속에도 아름답게 새겨져있는것이였다.

바로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에 로씨야국가교예회사교예단 배우들은 축전무대를 훌륭히 장식하였고 관록있는 예술단체로 우리 인민들의 기억속에 더욱 뚜렷이 남아있게 되였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서도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심에 떠받들려 년대와 세기를 이어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뜻깊은 4월의 봄축전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려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고 뜨거운가를 잘 알수 있었다.

로씨야 웰리나야 스쩨삐 까자크예술단에서

로씨야 웰리나야 스쩨삐 까자크예술단은 자기의 개성이 뚜렷한 예술단체이다.

까자크들의 민속전통을 계승하는것을 예술창조활동의 기본으로 내세우고있는 예술단은 민족적색채가 짙은 공연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자기들의 문화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예술단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온 인류의 마음이 굽이쳐흐르는 대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되였다는 소식에 접한 예술단성원들의 격정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컸다.

그때의 심정을 단장은 이렇게 피력했다.

세계의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성대한 위인칭송의 축전에 참가하는것은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행운이 아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대하여 일정한 표상을 가지고있던 예술단성원들에게 있어서 평양은 꼭 가보고싶은 곳이기도 하였다.

여러 계기를 통하여 축전도시에 대하여 알게 될수록 그들의 마음은 평양으로 끝없이 달리였다.

그 나날 예술단성원들은 평양의 중심부인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이 모셔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류다른 감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렇게 되여 예술단성원들은 평양에 도착하여 맨 처음으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할것을 요청하였고 자기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꽃바구니도 성의껏 준비하였다.

만수대언덕을 찾은 그날 예술단성원들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 가보고싶다고, 조선의 령도자들이시야말로 위인중의 위인, 인류의 태양이시라고 격조높이 토로하였다고 한다.

위인을 흠모하고 평화와 친선을 바라며 자기들의 민속전통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 예술단성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그대로 환희로운 경축의 무대를 펼치며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다음번 축전에도 꼭 다시 참가하고싶다. 이것이 예술단성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예술단의 창립자이며 지휘 및 총연출을 맡고있는 단장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평양은 한두마디의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황홀한 도시이다. 조선의 하늘에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솟아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찬란한 태양,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확신했다.

길지 않은 축전의 나날을 통하여 사회주의강국의 밝은 미래로 내달리고있는 우리 조국의 모습,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술단성원들 스스로가 그 태양은 온 세계를 밝히고있으며 그 빛발은 영원할것이라는것을 절감하게 될것이라고.

로씨야 첼랴빈스크국립우랄무용단에서

로씨야에서도 우수하고 관록있는 무용예술집단의 하나로 손꼽히는 첼랴빈스크국립우랄무용단은 전통적인 로씨야무용을 전문으로 하는 민속무용단체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는것은 첼랴빈스크국립우랄무용단 예술인들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열렬한 소망이였다.

이들은 이번 축전보장을 위하여 2년동안이나 공연준비를 하였는데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명성을 떨친 무용단이 외국공연을 앞두고 이처럼 오랜 기간 연습을 해온적은 없었다고 한다.

우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놓여있는 우랄산줄기를 생각하군 한다.

이들은 독특하고도 우아한 형상으로 문화와 풍습이 서로 다른 여러 민족들이 살고있는 우랄지역의 다양한 생활상과 함께 그들의 고유한 민족적정서와 감정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기백있는 무용동작과 서정적이면서도 특이한 매혹을 주는 형상은 첼랴빈스크국립우랄무용단의 예술적장점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무용단성원들은 자기들의 무용종목들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하고 세련된것들을 골라 무대에 올렸다.

무용 《친선의 꽃다발》로 시작된 이들의 공연은 《비헨까》, 《마부들》 등의 무용작품들을 통하여 로씨야인민의 락천적인 생활모습과 감정정서를 재치있는 예술적기교와 우아하고 열정적인 률동으로 훌륭히 보여줌으로써 관중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우리와 만난 첼랴빈스크국립우랄무용단 단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품속에서 꺼내보이면서 인민들이 사회주의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깊이 공감하고 탄복하게 된다고 하면서 친선의 뉴대가 뜨겁게 이어지는 4월의 축전이 영원하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끝없이 번영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조선의 4월을 뜻깊게 장식하는 아름다운 축전무대에는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들이 끝없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룡

라오스국립예술단 예술인들

뜨거운 마음이 합쳐진 축전장

이번 축전에 참가한 모든 예술단체들이 다 그러하듯이 라오스국립예술단의 예술인들도 열렬한 흠모와 친선의 마음안고 성의껏 준비한 작품들을 무대우에 펼쳐놓았다.

라오스인민들의 근면한 생활풍습을 홍겹고 우아한 률동으로 펼쳐보인 무용들과 라오스와 조선사이의 친선의 정을 담은 작품도 절찬을 받았지만 특히 관중들의 심금을 울려준것은 녀성독창가수가 부른 우리 나라 노래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과 높으신 권위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공인하고있으며 한결같이 높이 칭송하고있습니다.》

노래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를 부른 녀성독창가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4월의 봄축전에 참가한다고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 대하여 알고있는것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그의 노래에서 흘러나오는 열렬한 사상감정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 세차게 끓어넘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그대로였다.

처음 그가 이 노래를 선정하게 된것은 서정적이고 절절한 선률에 마음이 이끌려서였다. 진실하고 소박하면서도 심오한 가사의 뜻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은 노래에로 더욱 쏠리였다. 이렇게 되여 준비한 노래였다.

축전에 참가하여 첫 공연을 앞둔 시각 그는 우리 나라 통역원에게 가사의 뜻을 다시 알려줄것을 부탁하였다.

통역원의 이야기를 듣고난 그는 가사를 새길수록 가슴이 뭉클해진다, 축전무대우에서 진심으로 노래를 부르겠다, 조선에서 이런 훌륭한 노래를 부르게 된것이 긍지스럽다고 하면서 련습에 더욱 정열을 쏟아부었다.

노래는 심장의 언어라는 말이 있다.

녀성독창가수의 노래가 그토록 관중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은것은 그것이 바로 그의 심장속에 간직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매혹과 흠모의 분출이었기때문이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을 변함없이 따르려는 인류의 마음은 무대우에서만 굽이쳐흐르지 않았다.

예술단의 부단장은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그때를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그래서 자꾸 오고싶어지는 조선이라고, 다음번 축전에는 더 많은 예술단성원들과 함께 참가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축전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예술사절도, 여러번 참가한 예술사절도 절세위인들에 대한 열렬한 매혹과 흠모로 가슴끓이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장이야말로 인류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태양칭송의 축전장이다.

본사기자 조향미

4월의 봄빛 아름다운 평양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피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온갖 꽃 만발하는 환희의 계절에 대륙과 대양을 넘어 평양을 찾은 수많은 외국의 벗들.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 태양절을 맞으며 꽃바다, 춤바다를 펼친 아름다운 평양은 그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을 도시로 깊이 자리잡게 되였다.

모란봉의 진달래

마르쩌로쌴 마리안나는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에서 나오는 노래 《꽃놀가》를 비롯한 여러 노래를 안고온 아르메니아의 독창가수이다.

노래를 준비하면서 그의 가슴속에는 처음으로 보게 될 조선의 모습, 수도 평양에 대한 호기심이 나날이 커만 갔다.

어떤 나라일가, 어떤 력사와 문화를 가지고있으며 이 노래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일가, 노래에 나오는 진달래라는 꽃은 어떤 모양의 꽃일가.

노래의 내용을 파악하고 류창한 조선말로 형상하는 과정에 녀가수는 가극창작을 몸소 지도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음악적천품에 깊이 매혹되였다고 하였다.

마침내 평양에 도착한 그는 노래에서 나오는 꽃놀가의 진달래를 여기 모란봉에서 보았다고, 모란봉의 진달래를 마음속에 안고 노래를 불렀다고 자기의 진정을 터놓았다.

책들에서, 인터네트에서 다는 알수 없었던 평양의 황홀함에 매혹되고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가득차있는 뜨거운 흠모의 정을 가슴벅차게 새겨안게 된 마르쩌로쌴 마리안나에게 있어서 모란봉기슭의 연분홍진달래는 영원히 안고살고싶은 평양의 아름다움으로 간직되였던것이다.

류다른 선물

태양절을 맞으며 축원의 꽃바다를 펼친 평양의 모습을 사진으로 빠짐없이 남기고싶어하는것은 이번 축전참가자들의 하나같은 열망이다.

더우기 꾸바의 클라리네트독주가 론떼메이 비센떼 호쎄와 동행한 피아노연주가 로드리게스 꼬메아 마리아 델 로스 앙헬레스에게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사진기를 손에서 놓을줄 모르는 사연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저에게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있는 딸이 있답니다.》

평양에서 그렇듯 황홀하고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고 숨김없는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평양의 개선문은 자기가 알고있는 세계의 그 어느 개선문보다 더 훌륭하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뜻밖의 선물에 더없이 기뻐할 딸의 모습을 그려보는 피아노연주가가 평양의 황홀경을 사진에 담아갈 때 클라리네트독주가인 론떼메이 비센떼 호쎄의 가슴속에는 조선의 력사를 하루빨리 아들에게 알려주고싶은 소망이 자리잡고있었다.

그 소망은 얼마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게 된 때로부터 간직하게 된것이라고 한다.

이번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노래 《그리움은 끝이 없네》를 비롯하여 다함없는 흠모와 친선의 정을 담은 노래들을 선물로 안고 온 그들에게 우리 평양은 이렇듯 류다른 선물들을 안겨준것이다.

단장의 약속

《우리가 연주하게 되는 〈아리랑〉은 조선인민에게 드리는 정중한 인사로서 제가 직접 편곡한것입니다.》

이런 말로 서두를 뗀 프랑스의 알베리크 마냐르명칭 실내악단 현악4중주단 단장 파베르델 크리스띠앙 알땡은 평양에서 보게 된 모든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펼쳤다.

깨끗하고 청신한 기운이 풍기는 아름답고 현대적인 도시, 거리마다에 넘치는 사람들의 활기와 개막공연에서 본 귀여운 조선어린이들의 티없이 맑은 웃음, 그 형상이 하도 독특하여 훌륭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렵다는 무용 《눈이 내린다》…

그에게 있어서 평양방문은 처음이 아니였다.

하지만 매번 올 때마다 놀랍게 전변되는 모습이 그에게 준 감흥은 비길데없이 큰것이였다.

파베르델 크리스띠앙 알땡은 평양에서 새롭게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것에 대하여 깊이 정이 들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평양에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제 다시 오면 몇달이 아니라 오래동안 려행하면서 평양의 모든것, 조선의 모든것에 대해 더 많이, 더 깊이 알고싶다고 자기의 진심을 터놓았다.

김수정

지휘자의 세번째 소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0성상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앞에 영구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위인이시였습니다.》

축전의 나날에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의 정을 더욱 뜨겁게 마음속에 간직한 예술인들속에는 뽀르뚜갈의 지휘자 루이스 씨쁘리아노도 있다.

뽀르뚜갈의 지휘자 루이스 씨쁘리아노는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온 예술가이다.

연주가, 작곡가, 지휘자로 이름을 날리며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예술활동을 벌려온 그가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받은 감동은 대단히 크다.

두차례의 공연에 출연한 소감에 대하여 묻는 우리에게 그는 자기는 조선에 와서 두가지 소원을 풀었다고 하였다.

첫번째 소원은 이번 축전에서 수령칭송의 송가를 연주하는 관현악단을 지휘하는것이였다.

여러차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경력을 가진 관록있는 지휘자들이 있어서 자기에게는 그런 행운이 차례지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개막공연의 첫 순서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연주하는 관현악단의 지휘를 맡은것이였다.

《개막공연무대에서 지휘를 하면서 체험한 감정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여년간 지휘를 해왔지만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지휘하던 그 순간만큼 가장 극적인 때는 없었습니다. 장내를 뒤흔들던 힘있는 음악, 열광적인 환호, 그야말로 최절정이였습니다. 그때의 흥분이 아직도 내 가슴속에서 격랑을 일으키고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두번째 소원을 푼 이야기도 덧붙였다.

알고보니 그는 조별공연의 마감을 장식할 때에도 수령흠모의 노래를 지휘하고싶었는데 소원대로 그 음악작품을 연주하는 관현악단의 지휘를 한것이였다.

《관현악 〈발걸음〉이 정말 박력있고 씩씩합니다. 귀국인민이 존경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발걸음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기상이 눈에 보이는것만 같았습니다. 그 선률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는 어느새 세번째 소원이 자리잡게 되였다고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그 매혹적인 선률을 조선에서만 울리는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관현악 〈발걸음〉의 총보를 가져가고싶습니다. 뽀르뚜갈에 돌아가서도 지휘를 할수 있게 말입니다.》

뽀르뚜갈의 한 지휘자가 조선에 와서 태양찬가들을 마음껏 지휘하고도 성차지 않아 또다시 품게 된 세번째 소원, 이것은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흠모심이 얼마나 뜨겁고 절절한가를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요술가가 받은 감동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태양절과 더불어 만민의 심장마다에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더해주며 수도 평양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예술단체들이 출연하는 다채로운 공연무대들이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높이 흠모하고 따르는 위대한 수령이십니다.》

이번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교예배우들속에는 싱가포르요술가인 위 키엔 멍도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많은 공연을 진행하여 인기를 끈 재능있는 요술가인 그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되는 평양의 축전무대를 향해 자신이 성의껏 준비한 요술작품을 안고 달려왔다.

그가 보여준 기능요술 《어린이요술》은 관람자들로부터 커다란 절찬을 받았다. 관람자들은 요술가가 능숙한 솜씨로 신비한 요술의 세계를 특색있게 펼쳐보일 때마다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첫 공연에 나서기에 앞서 그는 조선사람들앞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공연인것만큼 긴장하지만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직접 와보니 감동이 크다.

특히 축전개막식에 참가하여 조선예술인들의 공연을 보면서 정말 놀랐다. 난생처음 이런 멋진 공연을 보았다.》

그러면서 다음번 축전에도 좋은 요술작품을 준비하여가지고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하였다.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져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세상에 둘도 없는 대예술축전으로 온 세상에 더욱 밝은 빛을 뿌리는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박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을 경축하여

태양조선의 휘황한 래일을 축복하는 4월의 불보라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경축하여 1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이날 저녁 김일성광장과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량안에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9월의 대축전장을 마중해가는 가슴벅찬 시기에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영광의 날을 맞이한 끝없는 환희를 안고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를 순간을 기다리는 각계층 시민들의 물결이 굽이쳤다.

군중들의 가슴가슴은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설레이였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장중한 노래선률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축포가 터져올라 수도의 밤하늘을 화려한 불꽃으로 뒤덮었다.

태양민족의 대흥운의 날, 대경사의 날을 만대에 빛내여갈 천만군민의 충정의 마음이런가 형형색색의 축포들이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며 아름다움의 일만경을 펼치고 축포성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민족과 전세계가 우러러받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이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가는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영예와 긍지가 넘쳐흐르는 4월의 밤하늘가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영생축원의 마음을 담아 갖가지 색갈의 불보라, 꽃보라가 뿌려졌다.

《태양절 불명절》의 노래선률이 울려퍼지는 속에 펼쳐지는 황홀한 불의 세계를 바라보는 군중들은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인민을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희세의 천출위인을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우리 인민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존엄높은 인민으로 이 세상 천만복을 다 누려가고있는것이다.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번영하며 자위로 굳건한 우리 공화국의 위용과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임을 증시하듯 축포의 화광이 주체사상탑을 부각시키며 밝게 비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만대에 빛내이시며 불철주야의 선군혁명령도로 김일성조선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축포가 끝없이 터져올랐다.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힘을 과시하듯 눈부신 축포의 화광속에 충축포들이 앞을 다투어 뚫어오르자 군중이 터친 환호성이 곳곳에서 울려퍼지였다.

환희와 격정에 넘친 군중들의 얼굴마다에는 태양민족이 맞이한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래일은 보다 휘황찬란할것이라는 확신이 어려있었다.

각양각색의 고공탄들이 터쳐올린 천갈래, 만갈래의 불꽃보라들이 흩어져내려 대동강반을 천색만태으로 찬란히 물들이고 무수한 충축포들이 곧바로, 교차로 치솟으며 수도의 밤하늘에 아름다운 불야경을 펼쳐놓았다.

주체조선의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며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뗏뗏이 맞이하려는 천만군민의 마음을 담아 갖가지 구슬같은 불꽃들도 드넓은 상공에 련속 꽃구름을 피워올렸다.

위대한 당의 손길아래 날에날마다 선경으로 전변되는 조국의 현실, 더더욱 부강번영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며 터져오르는 축포는 군중들로 하여금 태양민족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었다.

갖가지 색갈과 모양의 불보라, 꽃보라가 펼쳐지는 밤하늘가에 우리 군대와 인민을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인민의 환희》의 노래가 울려퍼지며 경축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었다.

세기를 주름잡으며 폭풍쳐 내달리는 만리마조선의 불가항력적위력을 과시하며 불줄기는 담차게 하늘을 꿰지르고 축포의 뢰성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광명한 미래를 부르는 봄우뢰가 되어 끝없이 울려퍼졌다.

4월의 하늘가를 환희롭게 장식한 경축의 축포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쳐 내달리는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힘과 용기를 백배해주었다.

만경대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의 고향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제20차 김일성화축전 참가자들과 여러 나라 당대표단들, 해외연고자가족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뜨락에 들어선 그들은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사회주의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서순옥의 딸 김진옥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만경대를 방문하니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일이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만나주시고 친부모의 사랑을 안겨주시던 나날들이 눈물속에 되새겨진다고 하면서 언제나 혁명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자식들도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말하였다.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김순옥의 아들 현종용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였기에 우리 조국은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칠수 있었으며 해외동포들도 조선민족의 한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한분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국의 륭성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중국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하면서 중국 단동신보과학기술유한공사 리사장 왕분일은 반제공동투쟁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평양과학기술대학 공동운영 부총장 최룡호는 위대한 수령님은 세상에서 가장 걸출한분이시라고 칭송하였다.

라오스국립예술단 단장 령나쏜 짬파는 이렇게 토로하였다.

만경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우리는 조선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다.

이밖에 그들은 제20차 김일성화축전장, 조선혁명박물관, 국가선물관, 주체사상탑 등을 참관하였다.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태양절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5일 수도 평양과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당창건기념탑, 개선문,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시안의 무도회장들은 주체조선의 태양이 솟아오른 민족사적대경사의 날인 4월의 봄명절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끝없이 설레이였다.

《태양절을 노래하세》의 노래선률이 울려퍼지는 속에 아름다운 춤바다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경축의 춤물결을 일으켜갔다.

그들은 지나온 20세기의 년대들을 자랑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시며 휘황찬란한 앞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만경대의 노래》,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 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노래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의 노래에 맞추어 춤률동을 이어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중시를 국사중의 국사로,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한껏 어려있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들을 다발적으로, 런발적으로 창조해갈 청년전위들의 혁명적열의가 《사회주의전진가》, 《청춘송가》를 비롯한 노래들에 실려 힘있는 춤률동으로 이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으로 부강하는 청년강국으로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에 넘쳐 참가자들은 《인민의 환희》의 노래를 합창하며 경축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로 끝난 무도회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갈 청년들의 굳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경축무도회가 진행되였다.

4.25팀과 압록강팀사이의 남자롱구경기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4.25팀과 압록강팀사이의 남자롱구경기가 15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경기를 보았다. 량팀 선수들은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련마해온 롱구기술과 완강한 투지,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공방전을 벌리였다. 경기주도권을 쥐기 위한 선수들의 적극적이고 대담한 공격으로 아슬아슬한 경기장면들이 련이어 펼쳐질 때마다 관람자들은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철저한 대인방어와 역습속공, 재치있는 빼물기, 중장거리던져넣기를 비롯한 다양한 특기동작들로 련속 점수를 올린 4.25팀이 경기에서 우세를 차지하였다.

경기는 4.25팀이 압록강팀을 73:7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 폐막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가 폐막되였다.

6일부터 진행된 선수권대회에서 선수들은 우리 식의 경기전법과 다양한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고 평시에 다져온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훌륭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이 종합 1등을,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이 각각 종합 2등, 3등을 쟁취하였다.

태권도종목에서는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이 1등을,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이 2등을,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이 3등을 하였다.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 남자선수들과 평양시태권도선수단 녀자선수들이 단체맞서기경기에서 각각 1등을 하였다.

바둑종목에서는 함경남도태권도선수단이 1등을, 평양시태권도선수단과 강원도태권도선수단이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하였다.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 김광천(남자),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홍윤미(녀자)선수들이 태권도종목에서, 함경남도태권도선수단 전금석(남자),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장리경(녀자)선수들이 바둑종목에서 개인기술상을 받았다.

폐막식이 15일 태권도전당에서 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내각사무장 김영호동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서기장 김춘식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시내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상장, 메달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동지가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가 무도종목들의 기술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나라의 무도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모든 선수, 감독들은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폐막식에 앞서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과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 남자선수들의 태권도단체맞서기 결승경기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따쥐끼스딴 방문

외무상 리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13일과 14일 따쥐끼스딴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리용호동지는 씨로드쥐진 아쓸로브외무상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씨로드쥐진 아쓸로브외무상은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에모말리 라흐몬 따쥐끼스딴공화국 대통령이 보내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리용호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에모말리 라흐몬 따쥐끼스딴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씨로드쥐진 아쓸로브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회담에서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키며 국제무대에서의 호상협력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씨로드쥐진 아쓸로브외무상은 따쥐끼스딴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조선의 모든 평화애호적인 조치들을 적극 지지하며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국건설위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리용호동지는 또한 아질 이브로힘 따쥐끼스딴공화국정부 부수상을 의례방문하였다.

15일 대표단은 따쥐끼스딴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두샨베를 출발하였다.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20세기의 걸출한 수령

세계정치사에는 뚜렷한 업적을 남긴 정치가들과 위인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고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분은 알지 못한다.

하기에 오늘도 세계 진보적인류는 우리 수령님을 그토록 못 잊어하며 그이를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의 기치, 국제적정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반동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과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주적이고 공정한 국제관계의 수립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지난 20세기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혁명적변혁이 일어나고 진보와 반동,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의 격렬한 투쟁이 벌어진 세기였다. 이 격변하는 세기에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의 방향타를 확고히 틀어잡으시고 인류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자주의 기치, 국제적정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기여를 하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자주는 우리 수령님께서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혁명신조였고 혁명방식이였으며 혁명실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생명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 진리를 밝혀주시고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시종일관하게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시였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도 언제나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시고 자주적대외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시였다. 언제나 인민의 힘, 자체의 힘을 믿으시고 그에 의거하여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복구건설,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였다. 지배주의자들의 비렬한 비방중상과 압력도 있었고 사대와 외세의존에 찌든자들의 쏠라닥질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구체적환경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시였다. 다른 나라 당들과 국가들과의 관계도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발전시켜오시였다.

사대와 교조가 만연하고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강권이 살판치던 지난 세기 자주적대를 굽히지 않으시고 우리 혁명과 대외관계를 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실천은 그대로 사회주의건설의 귀감으로 되였다. 자주는 력사의 정의이고 혁명의 승리이며 공정한 국제관계발전의 기초라는것이 확증되였다. 인민대중이 지배와 굴종에서 벗어나 자기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해나가는 자주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현대정치사의 기적이였으며 특기할 사변이였다.

오늘도 자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을 보여주는 뚜렷한 상징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신 불세출의 영장, 절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무장한 적과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야 승리할수 있다는 철리를 내놓으시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혁명생애의 전기간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고 제국주의자들과의 판가리싸움과 준엄한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하시였다. 지난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강적들을 타승하심으로써 우리 조국의 자주권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시였다. 하기에 우리 수령님은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 평화의 수호자,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세상사람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신뢰를 받으시였다. 우리 국가는 평화를 말살하려고 발광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기를 꺾어놓고 인류자주위업을 주도해나가는 불패의 보루로 위용떨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계건설을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에서 전환이 일어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평화와 진보를 요구하는 지구상의 모든 인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 평화는 구걸할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맞받아싸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모든 투쟁방략은 오늘도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다.

강력한 혁명의 총대로 우리 조국의 자주권과 세계평화를 수호하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세계 진보적인류는 잊지 않고 가슴속깊이 새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류자주위업에 대한 사명감과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시고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들과 인민들에게 적극적인 방조와 지지를 주시면서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사실 미제와 직접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던 우리 나라에도 부족하고 모자라는것이 많았다. 그러나 힘이 좀 들더라도 반제자주,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것을 참다운 동지적, 혁명적의리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심없는 지지와 방조를 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였기에 20세기는 자주의 시대로 빛날수 있었으며 인류자주위업은 력사의 온갖 도전을 이겨내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인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고계신다.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에서 자주화된 새 세계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인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리 학 남

세계 진보적인류의 최대의 명절

여러 나라 인사들 담화, 글 발표

태양절에 즈음하여 먄마인사들이 1일과 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먄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린 톤은 조선인민과 함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6돐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자주시대를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였으며 한없이 고결한 풍모를 지니시여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신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앞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련이어 창조하고있다.

세계는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고있는 조선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먄마 미트 타르모출판사 총사장 마웅 마웅 나잉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 인류자주위업 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그이는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시여 조선인민의 세기적념원과 숙망을 찬란한 현실로 펼쳐주신 걸출한 수령이시다.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진두에 모신 조선인민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 *

태양절에 즈음하여 체스꼬, 요르단인사들이 3일과 5일 글을 발표하였다.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부위원장 루까슈 브로벨은 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과 전승업적을 찬양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나라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칠수 있었다.

조선은 국제무대에서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평화를 수호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게 하고있다. 이것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리시였다.

온갖 부정부패와 범죄, 썩어빠진 문화가 범람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조선의 사회제도는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 훌륭한 본보기로 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따라 조선은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국제무대에서 조선의 지위는 더욱 높아가고있다.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 마르완 추다호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태양절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최대의 명절이다.

해마다 진행되는 김일성화축전에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키운 태양의 꽃이 전시되는것을 통해서도 김일성주석의 위인상에 대해 잘 알수 있다.

조선인민이 주석의 탄생일을 태양절로 성대히 경축하는것은 그이께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전체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삶과 행복을 꽃피워주시였기때문이다.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은 김일성주석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석께서는 한평생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로고를 바치시였다.

김일성주석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그이의 사상과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태 양 절 경 축

일조우호시국강연회 진행

태양절경축 일조우호시국강연회가 5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강연회에는 히모리 후미히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의장, 나까무라 쩽끼 일조학술교육교류협회 회장, 야나기사와 도꾸지 일조문화교류협회 리사장, 가네마루 싱고 이전 일본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 싱의 정무비서를 비롯한 일본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서충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국제통일국 국장과 간또지방의 총련일군들이 여기에 초청되였다.

강연회에서는 조선대학교 준교수 리병휘가 《4월남북련석회의 70돐의 력사적의의와 평화통일의 전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리병휘 준교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평양에서 진행된 4월남북련석회의는 리승만역적패당을 제외한 모든 조선민족이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정부수립을 지지하는데 합의한 력사적인 회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시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고계신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북남사이에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는것은 4월남북련석회의에서 천명되고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서 계승된 민족자주의 사상,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구현된 결과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일본정부가 조선반도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역행하지 말고 조일평양선언에 기초하여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연에 앞서 일본기자 하야시 노리꼬가 《일본인처취재를 통해서 생각하는 일조관계문제》라는 제목으로 공화국에서 살고있는 일본인녀성들을 위재하며 촬영한 사진자료들을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대학교 주체107(2018)학년도 입학식 진행

총련 조선대학교 주체107(2018)학년도 입학식이 10일 일본 도꾜에 있는 대학강당에서 진행되였다.

입학식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배익주부의장, 강추련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송근학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육국 국장, 한동성 조선대학교 학장, 장병태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신입생들과 학부모들, 교직원, 학생들, 재일동포들이 입학식에 참가하였다.

입학식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와 조국의 여러 대학들에서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였다.

허종만의장이 축하발언을 하였다.

그는 조선대학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세심한 령도로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으며 한없이 숭고한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참으로 유서깊고 전통이 있는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교포대학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대학교 창립 6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축하문에서 조선대학교는 진정 조국과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귀중한 재부라고 평가하여주시고 높이 내세워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오늘의 시대는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하고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력사의 전환기이며 조국에서 인민의 리상이 활짝 꽃피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번영의 시대이라고 강조하였다.

신입생들이 마음의 기둥이 든든하고 신념이 강해야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사상과 리론, 령도의 현명성을 체계적으로 배워 주체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신입생들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갖추고 훌륭한 실력가가 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떠메고나가는 믿음직한 인재로 준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신입생들이 오늘과 같이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강성번영에 이바지하며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치는 활력과 지성을 지닌 민족간부로 자라날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였다.

입학식에서는 한동성학장의 보고에 이어 결의토론이 있었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웅안신구건설

중국의 하북성에서 웅안신구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웅안신구건설은 1년전부터 시작되였다. 당과 국가의 지도와 관심속에 지난 1년간 신구건설에서는 많은 전진이 이룩되였다. 현재까지 수십개의 주요기업들이 웅안신구건설에 진입하였다. 비행장과 고속철도, 항만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수리화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있다.

웅안신구건설은 베이징시, 천진시, 하북성사이의 협동적발전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습근평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베이징, 천진, 하북의 협동적발전을 중대한 국가전략으로 규정하였다. 전략은 발전된 지역들이 덜 발전된 지역들의 발전을 추동하는것과 함께 도시에 집중된 일련의 기능들을 주변지역에로 분산시켜 인구밀집과 도시공해, 교통운수의 혼잡을 피하고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지난해 2월 습근평총서기는 신구건설계획사업좌담회에서 《웅안신구는 후대들에게 물려줄 력사적유산으로서 〈세계적안목과 국제표준, 중국특색과 높은 위치〉의 리념을 견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한 시범구를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17년 4월 웅안신구를 내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웅안신구는 심천과 상해에 이어 전국적의의를 가지는 중요지구로 되게 되였다.

지리적으로 볼 때 웅안신구는 북쪽으로는 베이징과 접해있고 동쪽으로는 천진과 면해있다. 베이징, 천진, 보정을 련결하는 중심위치에 자리잡고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풍부한 자연부원과 관광지들을 가지고있다.

습근평총서기는 웅안신구를 록색지능화된 새 도시로 건설하며 깨끗한 생태환경을 형성하는것을 기본으로 건축과 록화가 배합되고 물과 도시가 융합된 생태도시로 건설하는것 등 신구건설에서 나서는 7가지 원칙적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중국당과 정부는 신구건설과 관련하여 개발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히는 방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신구건설과 직접적인 련관을 가지고있는 단위들에서 주요대상건설계획들을 발기하고 적극 추진하고있다. 베이징대학, 청화대학 등 10여개의 주요대학들이 이 지역에 분교를 내올것을 계획하고 준비사업을 다그치고있다. 베이징에서부터 웅안역까지의 고속철길건설이 진행되고있다.

앞으로 웅안신구건설에서는 교통과 물, 전기, 가스공급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지금 개발자들은 웅안신구를 당과 국가의 정책적지도밑에 난관을 극복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중국특색의 현대화되고 지능화된 록색형의 생태문명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분발해나서고있다.

베이징주재 본사특파기자 백 산 해

우 리 나 라 도 서 기 증 식

로 씨 야 에 서 진 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4일 로씨야의 울라지보스또크시에서 진행되였다.

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위원회, 연해변강 오떼웨TV방송회사의 인사들과 군중들, 울라지보스또크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기증식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전달되였다.

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위원회 위원장 알렉세이 표지츠끼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들은 조선의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나아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지침으로 된다.

로작들은 조선의 현실을 공감하고 조선과의 다방면적인 협조를 지향하는 원동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는 조선로동당과의 련대성을 강화해나가려는 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위원회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으로 될것이다.

모든 지부성원들이 로작들을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다.

중국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할 립장 천명

최근 미국이 대만에 잠수함제조기술을 판매할데 대한 판매허가증을 국내제조업체들에 발급한것과 관련하여 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견결히 반대하는 중국정부의 립장은 일관하고 명확하며 확고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원칙과 중미3개공동콤뮤니케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대만과의 정부급래왕과 군사적련계, 무기판매를 중지함으로써 중미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피해를 주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날 국방부 보도대변인도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이다, 중국군대는 조국을 분렬시키려는 온갖 기도를 분쇄할 능력과 결심이 있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국가의 주권안전과 령토완정을 확고히 수호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장애어린이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끝장낼것을 호소

잠비아대통령 에드가르 룽구가 6일 수도에 있는 체육시설을 돌아보면서 장애어린이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끝장낼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특별보호를 요구하는 장애어린이들을 멸시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이러한 현상이 체육분야에서도 나타나고있다고 하면서 장애어린이들도 다른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 회 적 진 보 를 위 하 여

몽골에서

몽골정부가 4일 간염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의료봉사운동의 2단계과업수행에 착수하였다.

이미 1년동안 진행된 운동의 첫 단계에서 40살-65살의 주민들에 대한 간염검진이 진행되였으며 2단계기간에는 16살-39살의 주민들이 검진을 받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2020년까지 B형 및 C형간염을 완전히 근절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캄보쟈에서

캄보쟈정부가 9일 에이즈 및 결핵전파방지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제기구와의 협조밑에 2020년까지 나라에서 에이즈와 결핵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게 된다.

현재 이 나라에는 6만 8 670여명의 에이즈비루스감염자들이 있으며 결핵감염률은 10만명당 222명에 달하고있다 한다.

우간다에서

우간다에서 지난해 경제가 6.3% 장성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2배이상 더 높은 장성률이라고 한다.

앞으로 3년동안 나라의 년간 경제장성률은 6.5%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있다.

9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밝혔다.

브라질에서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시에서 최근 대규모범죄조직에 대한 소탕작전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 강탈행위를 일삼던 범죄자 4명이 처단되고 140여명이 체포되였으며 범죄자들이 리용하던 무기와 통전기재들이 압수되였다 한다.

에짚트에서

에짚트정부가 9일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적범위에서 낡은 철도를 현대화하며 1 300량의 려객차량과 300량의 화물차량들을 새로 구입하여 철도수송사업을 개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우심해지는 철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날로 발전하는 친선협조관계

우리 나라와 이란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된 때로부터 45년의 세월이 흘렀다.

조선과 이란 두 나라 관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예드 알리 카메네이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를 비롯한 이란의 고위인물들과 그 기초를 마련해주시고 강화발전시켜주신 친선협조관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89년 5월 대통령으로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세예드 알리 카메네이와 진행하신 력사적인 상봉은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의 튼튼한 초석을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일행, 국회대표단, 이슬람교혁명근위대 총사령관, 군사대표단, 이란라지오 및 텔레비존방송대표단 등을 친히 접견해주시고 조선과 이란 두 나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사업을 령도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나라와 이란과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두 나라 관계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조선과 이란 두 나라 인민들은 자주의 숭고한 리념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친선협조관계를 맺었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한 속에서도 두 나라의 친선관계는 변함없었다.

이란인민은 오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근면한 인민이다.

지난 2월 이란인민은 자기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슬람교혁명승리 39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이란인민은 초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아야똘라호 이맘 코메이니의 령도밑에 전제적인 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이슬람교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때부터 이란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물리치면서 혁명의 성과를 공고히 하여왔다. 지금 이란은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경제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 이란년도의 첫 6개월동안에 경제가 4.5% 장성하였다고 한다. 얼마전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는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세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이란새해를 《국내생산증진의 해》로 선포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자국내 생산자들이 외국상품과 당당히 견줄수 있는 질좋은 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것을 호소하였다.

이란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고 중동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넣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미싸일계획을 계속 실행해나가고있다. 이란은 자국의 미싸일계획이 핵합의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추호의 동요도 없이 방위력을 튼튼히 다져나가려는 이란정부의 립장은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우리 나라와 이란은 다같이 자주성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다. 현시기 우리 나라와 이란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은 반제자주적립장을 고수하면서 서방의 제재와 압력, 간섭책동을 짓부시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나아가는 이란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이란인민의 투쟁은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둘것이다.

본사기자 라 명 성

시 위 와 파 업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와 이스라엘사이의 경계지역에서 6일 팔레스티나인들이 대규모적인 반이스라엘시위를 벌렸다.

시위에는 약 2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구호들을 웨치면서 적수공권의 팔레스티나인들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의 처사를 준렬히 단죄하였다.

이스라엘군이 시위진압에 광분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시위군중에게 실탄과 최루탄, 고무탄을 마구 쏘아 8명을 살해하고 1 00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유태복고주의자들의 계속되는 란압만행은 팔레스티나인들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프랑스의 항공운수업체인 에르 프랑스회사 종업원들이 7일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을 벌렸다.

파업에는 많은 비행사들과 승무원들, 정비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임금을 인상하며 자기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줄것을 회사당국에 강경히 요구하였다.

파업으로 비행기운행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조선중앙통신】

ㄱ-81060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우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